

flute & flutist

2003년 2 · 3월호



커버스토리 지니 백스트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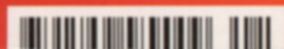
세계의 플루트 메이커

미야자와 플루트 / 라팡헤드조인트

Best Choice 중급자용 플루트[1]

2003 국내 음악 콩쿠르 가이드

지상레슨 샤미나드-콘체르티노



지니 백스트래서의 플루트 철학

지니 백스트래서의 연주를 한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뛰어난 음악성에 빠져들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아 온 지니 백스트래서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몬트리올 심포니 수석자리에 올라 최연소 여성 수석 플루티스트라는 기록을 세우며 오케스트라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줄리어스 베이커의 뒤를 이어 뉴욕 필하모닉 수석에 오르며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30년간의 화려한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New York Philharmonic Legends”와 “Excerpt for Flute” 등 다수의 음반을 냈고, 첫번째 저서 “Orchestral Excerpts for Flute”에 이어 지난 여름에 출간된 두번째 책 “Great Flute Duos from the Orchestral Repertoire”로 우리에게 리코딩 아티스트로 뿐만 아니라 저자로서도 유명한 플루티스트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저명한 선생님이기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뉴욕 필하모닉과 줄리어드, 맨하탄 음대를 사임하시고, 카네기 멜론 대학과 뉴잉글랜드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며 제자 양성에만 힘쓰고 계십니다. 필자는 줄리어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니 백스트래서 선생님을 만나 사사했습니다. 지니 백스트래서 선생님이 지닌 음악가로서의 철저한 프로 정신과 추진력, 학생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은 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인간적인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필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러한 그녀의 삶을 조금이나마 한국에 있는 음악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12월 지니 백스트래서 선생님의 자택에서 있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악가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의 성장과정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플루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전공을 하시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아버지는 사업가였지만, 취미로 피아노 연주를 즐기셨지요. 항상 집에서는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저희 육남매는 나란히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가 제 적성에는 맞지 않았기에 바이올린과 첼로도 차례로 배워보았지만, 제게는 모두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홉살이 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다짐으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소리를 내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취미로 시작했던 플루트가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도 저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저를 Interlochen 예술고등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곳에서 접한 다양한 앙상블 연주를 통해 오케스트라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 후 많은 연습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줄리어드 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이며, 소리와 테크닉 그리고 음악성 등 모든 면에서 당시 제가 가장 선행하던 줄리어스 베이커 선생님과 공부하게 되었어요.

줄리어드에서 선생님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줄리어드에 입학해서 처음 얼마 동안은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으로 인정 받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은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슨이나 앙상블, 오케스트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 실력 발휘를

못했죠. 하루는 레슨을 들어갔는데 베이커 선생님이 제 연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더군요. 질책은 많았지만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워 놓은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이커 선생님은 세계적인 연주가이며 동시에 수많은 제자를 두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에게 굳이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었고,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억지로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열심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관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한 순간도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자신과의 싸움인지도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지만, 그때를 계기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음악가로써의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졌던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어릴적 꿈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어렸을 때의 제 꿈은 너무나도 소박했어요. 그냥 플루트만 평생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제가 특별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즐겼기 때문에, 작은 오케스트라에서라도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꿈꾸었다고나 할까요. 당시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도 좋았던지, 매일 음악하는 이들이 만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지금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자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가 수석자리에 앉았던 역사가 그 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오케스트라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곡들을 접했던 것이 나중에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줄리어드에 입학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하는 큰 오케스트라 연주는 거의 빠짐없이 찾아다녔고, 좋은 음반은 놓치지 않고 사다 들었죠. 요즘같이 레슨에서 오케스트라 Excerpts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연습해야만 했지만 어려서부터 오케스트라 음악을 즐겨듣고 공부한 덕분인지, 줄리어드 졸업 즈음 몬트리올 심포니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꿈을 빨리 이루셨어요. 20세에 몬트리올에 들어가셔서 최연소 수석주자가 되셨는데, 오디션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몬트리올에 오디션을 보러간다는 말을 부모님이나 베이커 선생님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험장으로 갔답니다. 누구를 위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움 속에서 부담감 없이 제 실력을 테스트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또, 그때 당시 오디션의 모든 곡들을 수백번씩 들으며 연주해 왔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외울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고, 베이커 선생님께 플루트 연주법을 잘 배운 상태였으므로, 경험삼아 한번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다행히 합격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보니, 뒤늦게 누군가에게서 연락을 받은 선생님께서 축하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첫 오디션 합격을 했으니 꿈을 빨리 이룬 셈이네요.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신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고, 가셔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의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베이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며 큰 힘을 주셨어요. 또, 4년간 필하모닉 연주를 다니며 선생님의 연주 방법과 자세를 배워왔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어 큰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몬트리올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때문인지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요. 돌이키건데, 그동안의 제 인생에 있어서 몬트리올에서의 처음 3년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뺀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저보다 훨씬 연장자였고 다년간의 연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연주곡은 수십번씩 연주했던 경험이 있었던데 반해서, 새내기인 저는 매주 바뀌는 레퍼토리를 짧은 시간안에 내것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그 수고와 노력은 이루 말로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 연습때부터 다른 단원들과 같이 완벽하게 연주해야 하기때문에,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플루트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연주해야 하는 곡 하나하나 음반을 구입하여 곡 전체를 이해할 때까지 다시 듣고, 연구를 거듭했지요. 또, 매일 연습할 때마다 녹음기에 녹음한 후, 비브라토, 스피드, 음정, 리듬 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석을 해서 제가 추구하고, 듣고 싶은 연주가 나올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선생이 되어야 했고 녹음 테이프를 이용한 반복연습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연주가 제 뜻대로 안된 경우에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반면에 점차 만족스러운 소리를 찾아갈 때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의 뒤를 이어 많은여성들이 세계 각국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연습과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악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 연주자가 연주회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솔로도 아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손해이지만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실례되는 일이지요. 학창시절 베이커 선생님을 보면서 배운것 중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것은 선생님께서는 리허설에서나 연주회에서나 항상 최상의 연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번째로는 주위에 믿을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솔직한 조언을 부탁하고, 그들의 비평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가며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연주를 하건간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본인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연주에대해서 솔직한 평을 듣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서 연주하던 당시에도 항상 몇몇 친구에게 혹시 제 음정이 안 좋거나, 리듬이 틀린 다던지 하면 바로 얘기해 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말들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한다면, 형편 없는 연주를 하면서도 잘했다는 환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셋째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음악적, 인간적으로 조화를 이루느냐는 것이죠. 물론 음악적인 조화도 중요하겠지만, 인간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석 주자라고 하여도 리더쉽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젊은 여자로서 수석자리에 앉았다면, 앞으로 직면할 갖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기위해 강인함과 인내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부터 심한 말을 들을수도 있고,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편견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처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서 제 자신과 약속을 했고, 그 후로 30년간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서 그 약속을 어겨 본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헤가 거듭할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차차 적응이 되어갔고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기에 30년동안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몬트리올과 토론토 심포니 이후, 1000대1 이라는 경쟁을 뚫고 뉴욕 필하모닉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자체에도 의미가 크셨겠지만, 베이커 선생님의 뒤를 이어 그 자리를 맡으신다는것에 적지않은 부담감도 있으셨을것 같은데요.

몬트리올에 8-9년 있는 후에 토론토로 옮겼어요. 그 때는 어느 정도 경력도 쌓여있는 상태였고 나이도 30대에 접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어요. 제자신의 연주에도 만족했고,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솔로 연주, 라디오 연주, 레슨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베이커 선생님께서 뉴욕 필하모닉을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뉴욕 필하모닉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셨던 플루트 수석자리를 채우기 위한 오디션은 전 세계 모든 플루티스트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저 또한 평생동안 꿈꿔온 자리였고 제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이 오디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우연하게도 토론토에서 만난 저의 남편은 8개월전부터 Associate 바순 수석으로 뉴욕 필하모닉에서 연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오디션에 합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디션에 안 된다 하여도 전과 변함없이 저는 토론토에 남편은 뉴욕에 계속 있으면서 장거리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었으니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항상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언제나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큰 일을 치뤄야 할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제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때마다 제가 원하는것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을때도 남편은 저의 연습과정을 도와주면서도, 꼭 합격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신이 스스로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고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인생에 꼭 필요한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에야 겨우 제자신을 혹독하게 내몰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것에 집중해서 오디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필 오디션은 3일에 걸쳐서 치뤄졌는데, 첫번째 날은 모든 Excerpt를 혼자 연주해야 했고, 둘째 날은 같은 것을 오케스트라와 연주 했고, 마지막 날에는 연습없이 바로 연주를 해야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는지 마침내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합격과 동시에 이제 힘든것은 다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 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다 모인 만큼 소리도 훨씬 크고, 연주 스타일도 독특하고, 정말 적응해야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과연 베이커 선생님이 떠나신 자리를 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솔직히 제자신도 부담감이 커서 한동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 1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오디션 과정을 통과해서 결정된 일인데 그런 걱정은 불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후로 빠른 시일안에 적응이 되어 링컨센터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정이 들어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적이 있어서 여쭙보고 싶었습니다만, 오케스트라 시절에 아침마다 콘트를 엑서사이즈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오케스트라 연주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콘트롤입니다. 지휘자가 음악을 가지고 어떠한 해석을 하던지 요구 사항에 다 맞춰 줄 수 있도록 비브라토 속도나 다이내믹 조절이 철저히 가능해야 하고, 손가락 연습도 충분히 되어있어 속도의 유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아름다운 소리로 편안하게 연주 할 수 있지요. 많은 플루티스트들은 연주곡 자체에 연습 비중을 많이 두는데, 콘트롤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곡이든 빨리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저의 연습 방법은 톤 칼라, 크레센도와 디뮤니언도 조절법, 비브라토 연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나면 그 날 아무리 힘든 곡을 연주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삶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균형을 잡으셨습니까?

음악가가 되려면 끈기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즐기고, 견뎌내고, 또 그런 삶을 좋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의 남편도 음악가 입니다. 제네바와 뮤니크 국제 콩쿨에서 입상한 바순 연주가이고 저의 어머니 또한 음악가 이시기 때문에 음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특별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서의 활동 외에도 남편과 저는 줄리어드와 맨하탄 음대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음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즐겁기만 했죠. 이해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균형있는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음악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여가시간에는 뮤지엄에 가는 것과, 골동품 모으는 것, 그리고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오케스트라에서의 연주생활을 접으시고 꽤 젊은 나이인 50세에 은퇴하셔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퇴하시게 되신 계기와 혹시 후회는 없으셨는지요.

제가 늘 존경하고 본받아온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로 계셨던 조세프 긴골드라는 분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싶군요. 그 분은 50세가 되던 해에 오케스트라에서 은퇴하시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나머지 인생을 제자 양성에 바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날 그의 제자들 중 뛰어난 바이올린의 대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제게는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50세가 되면, 30년 동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해온 것이 되는데,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 과감하게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연주나 연습에 대한 부담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싶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더 많은 플루티스트를 만나보길 원했으며, 여태껏 시간이 없어서 미루어왔던 출판쪽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30년간 해온 직업이다 보니 일어난 동안은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으려면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따르기 마련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는 만족감에 도취되면서 그것은 자연히 극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보통 저에게 오는 학생은 17세 이상이 대부분인데, 이 때는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이 시기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보통 17세에서 23세 사이에 음악적 기반을 튼튼히 닦아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음악 공부가 끝날 무렵에는 사회에 나가 연주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존경해 주며 그들 각각의 음악적 요구를 늘 염두해두고 그것에 중점을 두어 가르친다는 것이죠. 한가지 방식이 좋았으니, 그 방식으로 모두에게 가르치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성공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진실로 원하는지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가이드로써의 역할만을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엄격한 선생입니다. 성실함과 진실됨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한 시간의 레슨을 받으러 오면서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와야 합니다. 저는 매번 레슨을 녹음해서 노트정리를 하게 합니다. 한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 전 주에 끝났던 부분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고, 혹시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도 찾아내어 교정해 줄 수 있으니까요.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첫 학기는 학생들이 집을 떠나와 학교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두번째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어 이제 삼사년 후면 저에게서 떠날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제 학생이라고 평생 제 밑에 있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 한명한명이 음악적으로 독립심을 키워서 졸업할 때가 되면 어린새가 장성하여 어미와 둥지를 떠날 때와 같이 홀로서는 법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한국의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재능이 있어요. 매번 한국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뛰어난 음악적인 수준과 진지한 교육 자세에 놀랍니다. 이들을 발굴하시고 훌륭하게 가르쳐주신 한국의 선생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깊은 존경과 찬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악기를 어떻게 불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어떤 나라를 정해서 유학을 떠나던지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개 사춘기나 그 이후에 유학들을 오기 때문에 아직 많은 면에서 자기생각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곳에 와서 분별없이 이것저것 본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옳은것과 그른것, 그리고 배워서 받아들여야 할것과 그렇지 못한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자라온 가족과 사회, 그리고 문화를 통해 형성되어진 소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지않길 바랍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번째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하려면 강한 면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너그러워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혹은 입시 과정과 콩쿨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왔다 하더라도, 인생을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런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실, 기쁜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딛고 다시 설수 있다는 것은 쉽게 성공을 얻는 자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전 세계를 다니며 마스터 클래스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플루티스트들을 만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계속 밀어왔던 세번째 책 발간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왔었던 음반들을 다시 발매하는 것입니다. 그 중 우선 이번 여름에 세번째로 열리는 International Master Class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6월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열리는 이 마스터 클래스에는 저를 비롯해서 Mathieu Defour, Marina Piccinini 등의 플루트 마스터 클래스와 아울러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저명한 교수진을 모시고 Recording Technique, Business of Music, Flute Pedagogy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와 강의를 갖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마친 후에는 미국의 각 지역과 독일 등에 초대되어 마스터 클래스와 코칭을 하기로 되어있고, 시간이 되는데로 저의 연습 방법을 모아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두권의 책을 내었었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저의 독특한 연습 방법이 담겨진 책을 CD와 함께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웹사이트인 www.JeanneBaxtresser.com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보고도 싶습니다.

인터뷰 / 번역 : 박수경(플루티스트)

줄리어드 대학, 대학원 졸업

양혜숙, 바니 릭터, 줄리어스 베이커, 지니 백스트래서에게 사사

뉴욕 플루트 콩쿨, 그레이트 넥 콩쿨 1등 다수 입상

현재 맨하탄 음대 예비학교, 뉴욕 썸머 뮤직 페스티벌 Faculty

Musicians of Lenox Hills 챔버 앙상블 디렉터 겸 플루티스트